

사회

# ‘총인 비리’ 끝모를 구속 행렬

교수·공무원·업자 등 4명 또 쇠고랑... 구속자 총 12명

광주지검 “수사 대상자 아직 많이 남았다”

광주시 총인저감시설 입찰비리 사건과 관련 11일 4급 서기관급 공무원 2명, 교수 및 업체 관계자 2명 등 모두 4명이 추가구속됐다. 이로써 지금까지 12명의 공무원, 교수, 업체 관계자가 구속되면서 비리 관련 단일사건으로는 광주시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가 됐다.

◇12명 구속, 비리 최대 규모=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호철)는 11일 광주시 총인저감시설 입찰비리 사건과 관련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로 구성된 ‘여전히 진행중’=검찰 수사의 칼날은 여전히 날카롭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 10일과 11일에도 전원 출근해 추후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등 수사에 피치를 올리고 있다.

이런 수사가 4급 서기관 이상 고위 공무원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번지고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마무리 단계가 아니며)본론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고위 공무원 관련 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등산과 비교할 때)아직 정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최근 다른 사건을 말지 않고 신호철 부장검사 등 5명이 이번 수사에만 진력하고 있으며, 광주지검은 외부 시선을 우려해 특수부에 대한 인원 보강은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다.

◇지도층 검은 거래 ‘만연’=검찰 수사는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비리 관련자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말보단 떠

원이었으며, 이 서기관은 건축 부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금호건설사 등에 5점 만점을 줬다. 서 부부장은 구속된 부하 직원 등을 통해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런 수사가 4급 서기관 이상 고위 공무원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번지고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마무리 단계가 아니며)본론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고위 공무원 관련 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다른 사건을 말지 않고 신호철 부장검사 등 5명이 이번 수사에만 진력하고 있으며, 광주지검은 외부 시선을 우려해 특수부에 대한 인원 보강은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다.

◇지도층 검은 거래 ‘만연’=검찰 수사는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비리 관련자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말보단 떠

■총인저감시설 비리 관련 구속자 현황

성명	소속 및 직책	혐의
윤00	대림산업 상무	심사위원 등에게 6000만원 제공
유00	광산구청 4급	대림산업으로부터 2000만원 수수
박00	전남대 교수	대림산업으로부터 1만달러 수수 등
반00	광주시청 4급	대림산업으로부터 1만달러 수수 등
김00	금호산업 상무	심사위원에게 5000만원 건네려다 거부하자 심사 후 500만원 제공
조00	금호산업 팀장	원 제공
이00	목포대 교수	금호산업에서 1000만원 받고 대림산업·코오롱글로벌 측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 받았다가 되돌려줌
김00	코오롱글로벌 차장	심사위원에게 1000만원 제공 등
김00	광주시청 4급	금호산업과 코오롱글로벌 측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 수수
이00	광주시청 4급	금호산업으로부터 2000만원 수수
박00	동신대 교수	코오롱글로벌로부터 2000만원 수수
서00	코오롱글로벌 상무	심사위원에게 수천만원 제공

돌던 탄기(설계·시공 일괄 발주) 방식의 입찰 과정에서 사회지도층인 교수·간부 공무원과 업체 간의 ‘검은 거래’가 사실로 드러났다.

공무원과 교수는 검은돈을 받는 것은 물론 심사 후 뇌물을 약속받는 등 비리에 무감각했다. 업체들은 학맥·인맥을 동원해 평소 심사위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골프·술 접대로 ‘관리’하면서 심사위원 명단에 들어간 뒤에는 뇌물로 이들을 움직였다.

이번 수사를 통해 업체가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인 탄기 방식 입찰에 수역원에서 수십억원의 뇌물을 동원할 만큼 공사금액이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심사위원들의 명단을 시공사 선정 전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 제도의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윤 초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광주시청에 대한 지역민의 불신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관공공사로 근근이 유지되던 건설업체의 위축도 우려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나원침 (8520) 김장두



쌍촌동 편의점 강도

11일 새벽 5시15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모 편의점에 20대로 추정되는 괴한이 침입해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4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 괴한은 푸른색 점퍼와 청바지 차림으로 침입해 여종업원을 편의점 내실에 가두고 50여분 동안 편의점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과 종업원의 진술을 토대로 키 170cm가량에 20대로 추정되는 강도 용의자를 쫓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운전 맘에 안든다” 택시기사 폭행

○만취한 30대 남성이 택시기사의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중인 기사에게 ‘하이킥’을 날렸다가 경찰서행.

○1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모(37)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모 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운전중인 택시기사 A(61)씨를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둘렀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가 핸들이라도 놓쳤다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라며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귀띔.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재활용 장터 보물섬’ 개장

불교·천주교 등 4개 종교단체가 주관하는 ‘재활용 장터 보물섬’이 지난 10일 광주시 서구 5·18기념공원 내 무각사 주차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 매일 둘째, 넷째 토요일 열렸던 재활용 장터는 올해부터 매주 토요일 개장한다.

불교·천주교 등 4개 종교단체가 주관하는 ‘재활용 장터 보물섬’이 지난 10일 광주시 서구 5·18기념공원 내 무각사 주차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 매일 둘째, 넷째 토요일 열렸던 재활용 장터는 올해부터 매주 토요일 개장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담배 피우게 해 주마” 미성년 유인 성추행

동부경찰, 60대 검거

광주 동부경찰은 11일 “담배를 피우게 해 주겠다”며 10대 미성년자를 유인해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노모(6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0년 4월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시 동구 지산동 도장가게에서 담배를 사러 온 A(16·고교 중

퇴)양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노씨가 가게 안 간이침대로 A양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담배를 피우게 해주거나 용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40여 차례에 걸쳐 피해를 당했다”는 A양의 진술에 따라 이 사건을 원스톱 지원센터로 인계 자체한 피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김재호 판사 15일 소환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김 판사에게 15일 피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시사인(IN) 주진우 기자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판사 조사 후 필요하면 관련자들 대질 조사도 검토 중이며 결과에 따라 나경원 전 의원도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DNA로 잡았다”

경찰이 DNA 수사 기법을 활용해 미제로 남을 뻔했던 연쇄 강도간강간 사건의 용의자를 8년만에 검거했다.

광주서부경찰은 11일 상습적으로 강도간강간 행각을 벌인 정모(51)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4년 7월6일 오전 10시경 광주시 광산구 모 공사현장에서 초등생 A(당시 7세)양을 성폭행하는

등 광주와 대구에서 지난 2003년 10월부터 1년 동안 모두 3차례에 걸쳐 강도간강간 및 강간상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 1997년 강간상해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지난 2003년 5월 출소한 직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도간강간 등 전과 25범인 정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전경 광주시 서구 마북동 모 음식점에서 신부 나모(28)씨의 추의금 100여만

예식장 절도 조사중 8년전 성폭행 들통나

원을 흘리는 등 광주시 서구 일대 음식점에서 잇따라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12월께 광주시 서구 농성동 모 음식점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정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한 뒤 지난 2010년 7월 시행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씨의 구상상피세포(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 정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생활고 비판 두 딸 살해 불안경찰, 40대女 검거

부안에서 생활고를 비판해 두 딸을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여자가 사건발생 이틀 만인 지난 10일 붙잡혔다.

부안경찰은 이날 새벽 0시30분께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격포항 회센터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던 권모(여·40)씨를 검거했다.

권씨는 경찰에서 “빛을 많이 쬐서 아이들과 함께 죽으려 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권씨는 지난 8일 새벽 3시경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의 한 모텔 5층 객실에서 10살과 7살 난 두 딸을 살해하고 달아났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www.aliotv.kr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드리는 마케팅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기업의 3대 애로사항은 자금, 판로, 사람입니다. 한·중 비즈니스센터를 통하여 One Stop서비스를 경험하십시오.

**판로** 기업 홍보 및 마케팅 대행을 통한 판로 확대

**자금** 정책자금 및 각종 투자유치 컨설팅 수행

**사람** Global Market 진출을 위한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사업

호남 기업의 중국 진출 지방자치단체 중국 홍보 한·중 비즈니스센터 알리오TV가 책임지겠습니다.

- 중국내 자매 홍보매체

**CNTN** 중국국제방송 **한국어방송** **东北网** 중국국제방송

**홍콩상선문** www.hjxinwen.cn

**ADEC** 광주일보 지회사 (주)아데크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무등빌딩 5층 TEL. 062-223-5111 FAX. 234-5113  
서울사무소: 서울 중구 서소문동 89번지 운정빌딩 701호 TEL. 02-756-6733 FAX. 2179-7982